▪ 교회소식 ▪

1. 종려주일 :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2. 고난주간기도회 : 고난주간 기도회가 이번 주 26일(월)-30일(금)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3. 부활절 새벽 예배 :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새벽 부활절 예배가 6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세례입교식 : 다음 주일 1부 예배 중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자 - 김민수 박노수 이현주 // 입교자 - 이서영 천승호
   유아세례자 - 노주완(노신후 이한나) 이다인(이창선 신지인)
5. 신앙실천 :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막16:9~11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송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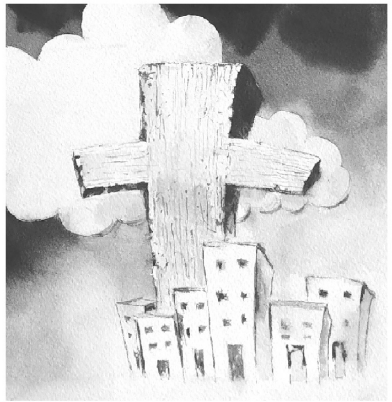
4월				
	1부 영접위원	이국노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한성건 설규범 이현순 김윤정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진정숙		

오늘 식당 봉사	청파찬양대		
다음주식당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최영미 조장형 박재영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최철수

2018-12 3월 25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려주일 】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고 내밀한 곳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국 사회가 역사의 변동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앞에서, 그 소명에 책임을 다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 30:5,11	인도자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신진식 목사
2부응 답 송		찬양대
2부찬 양	299.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 성경봉독	요 11:45-53	I. 인도자 II. 문홍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사랑이 없으면 II. 먼저	마중물 찬양대 참빛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김성수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정기 김정민
이혜령 김종락 박영신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혜리 김지훈 김진옥 김진혁 신다현 김창숙 김은종 김철수 유영남 김태정
박기태 박영희 박재영 이현정 박준희 이기분 박지혜 배강우 백성래 손숙경
송남필 신현일 안현숙 양경해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광섭
김수연 이근식 신영신 이수자 이순용 김신실 이용석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광호 임승동
백혜숙 전찬익 이은자 정연경 정학성 김현숙 조관행 홍선희 조문규 진정숙
조성일 주은경 최미자 최욱진 최은미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현진

감사헌금

강혜린 김와니 권윤경 김인걸 문영혜 김향자 남윤경 박기태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박진영 박진주 방경선 송병찬 유민호 유수지 유수진 이상도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임종수 장현희 정영례 조미영 조성민 최영빈 최혜정
한중윤 안미숙(아들군입대) 은종인(건강회복) 이재문(이사) 지평교회 무명2

녹색꿈헌금

이행진 채일석 최윤희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소금

- 장석주

아주 깊이 아파 본 사람처럼
바닷물은 과묵하다

사랑은 증오보다 조금 더 아픈 것이다
현무암보다 오래된 물의 육체를 물고 늘어지는
저 땡볕을 보아라

바다가 말없이 품고 있던 것을
토해낸다

햇빛이 키우는 것은 단 하나다
한 방울의 물마저 탈수한 끝에 생긴
저 단단한 물의 흰 뼈들

저 벌판에 낭자한 물의 흰 피들
저것은 하얗게 익힌 물의 석류다

염전에서 익어 가는
흰 소금을 보며 고백한다
증오가 사랑보다 조금 더 아픈 것이었음을

나는 여기 얼마나 오래 고여
상실의 날들을 견디고 있었던 것일까

아주 오래 깊이 아파 본 사람이
염전 옆을 천천히 지나간다
어쩌면 그는 증오보다 사랑을 키워 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말 씀	**사랑으로**	김재흥 목사
거룩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가야바의 삿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삿된 지혜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고난주간저녁기도회**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성금요일

4월 5일 일기

100여 명의 공동체 식구가 우리의 짐과 상처의 상징으로 각기 돌을 하나씩 들고 회관에서 데이스프링 채플까지 걸었다. 중간에 세 차례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으시던 과정을 되새겼다. 예수님이 쓰러지자 구레네 시몬 역을 맡은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 베로니카는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쓴 마이클이 예수님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를 한 협력자가 곁에서 거든다. 세 번째 멈추는 곳에는 마이클이 쉴 수 있도록 의자가 놓여있다. 찬송을 부른 뒤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 채플에 들어서서는 각자 십자가 곁이나 위에 돌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의자와 바닥에 함께 앉아 "나무 십자가를 보라"를 찬송한다. 로렌조가 십자가에 세 개의 큰 못을 박는다. 망치 소리에 침묵이 깨진다. 다시 찬송이 이어진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를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 때로는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그렇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다. 모든 슬픔과 비판 중에도 아름다운 위로가 있다. 우리는 함께 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에서 사랑이 부어진다.

우리는 밤에 다시 모여 예수님의 수난에 관해 존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우러르며 성찬을 받았다. 십자가가 중심이다. 커다란 십자가상을 보노라니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전해진 경로가 떠오른다. 4년 전 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판크라티우스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는 자리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죽기 전에 이 십자가상을 신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사시를 장애인 공동체 안에 꼭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그 십자가상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는 2차대전 중 파괴된 한 교회의 복구를 돕기 위해 독일 젊은이들을 이끌고 크로아티아에 갔었다. 거기서 그는 폐허 속에서 이 십자가상을 보았다. 현지 목사는 독일인들의 화해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상을 판크라티우스 신부에게 주었다. 십자형 틀은 없고 나무로 새겨진 예수님의 몸만 있었다. 죽어가는 신부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 십자가상을 건네받자 나는 마치 증오와 폭력과 전쟁이 낳은 고난과 몸과 마음에 장애를 지닌 이들의 고난을 하나로 연결하라는 지령을 받는 느낌이었다.

데이브레이크 목공소 책임자 조우가 장애인 가족들 - 빌, 존, 데이비드, 고디 -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닦은 나무로 커다란 십자가 틀을 만들어 그 위에 예수님 상을 걸었다. 그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데이스프링 채플 현관 벽에는 이 대형 십자가가 걸려 있다. 오늘만 십자가를 채플 안으로 들여와 의자에 앉아있는 마이클의 무릎 위에 놓은 것이다. 중증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마이클은 십자가를 붙들고 아주 좋아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기도했다. 마이클의 마비된 몸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이 한몸이 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려 줄지어 선 사람들은 예수께서 심신이 상한 무수히 많은 사람 속에서 지금도 고난받고 계심을 깨달았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수난을 되새기는 날만은 아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수난과 연합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다. 인류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 예수님의 상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은 곧 세상의 상한 마음이다. "나무 십자가를 보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 헨리 나우웬, 「안식의 여정」(복있는사람) 중에서